

I. 찬양(Praise):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II. 기도(Prayer): “부모 중 한 분이 대표로”

III. 성경(Bible): “요한복음 3:16~21 (John 3:16~21)”, 롬 13:11~14

IV. 말씀과 나눔(Sermon & Sharing)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박기한 목사

[요 3:16-21]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9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21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 권 중에 가장 유명한 성경구절을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요한복음 3 장 16 절일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어느 누구나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람의 거듭남을 알지 못하여 예수님께 질문하였던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요한복음 3 장 16 절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서 빛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 예수로 오신 이유는 어둠에게 빛을, 절망 속에 소망을, 고통 속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2000 여번의 성탄절을 보냈지만, 아직도 여전히 영생을 얻지 못한 수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그 이유는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은 빛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자들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은 빛의 갑옷을 입는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탄절마다 자주 부르는 찬송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 오베른도르프의 12 월은 하얀 눈 속에 강바람이 매우 차가운 곳입니다. 1818 년,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한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은 의미 있는 저녁 예배를 위해 성 니콜라 예배당에 모여 함께 찬양하며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마쳤지만, 성탄의 벅찬 감격으로 사람들이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 오르가니스트인 프란츠 그뤼버 선생님이 기타를 들고 나섰습니다. 요셉 모르 목사가 건네준 가사에 곡을 붙인 노래라며 전주를 시작했는데 그 노래가 바로 찬송가 109 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을 밝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요셉 목사와 그뤼버 선생이 이중창으로 화음을 넣어 불렀으며, 찬양대가 후렴을 따라 불렀습니다. 2, 3, 4 절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왕이 나셨도다’를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가사가 찬송가와 다르다구요? 네 맞습니다. 새찬송가 109 장의 가사를 성경말씀과 원가사에 비추어 잘못 번역된 것이라 말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사 “어둠에 묻힌 밤”의 독일어 원어는 모든 것이 잠든 때라는 의미이며 영어 번역은 모두가 고요할 때 모두가 밝다(All is calm, All is bright)고 번역해 두었습니다. 어둠에 묻힌 밤은 고요함을 잘 말해주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말해주지 못합니다. 예수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빛이 비추일 때 모두가 그 빛을 반사하여 밝게 밝힐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요 3:19).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는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하여 비추는 방법은 우리의 삶 속에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아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그 분의 빛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함께 다시 한번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을 밝힌 밤”

적용 및 나눔

1.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성자 예수님과 그 아들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나누어 봅시다.
2. 혹시 우리 삶 속에서 정욕을 따르기 때문에 빛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지 돌아봅시다. 혹시 그렇다면 회개합시다.
3.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어떻게 하면 성령충만하여 예수님의 빛을 어두운 곳에 비출수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

“Jesus, the Light of this World”

Pastor Ki-han Park

[John 3:16-21] “For God so loved the world, [a] that he gave his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For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in order that the world might be saved through him. Whoever believes in him is not condemned, but whoever does not believe is condemned already, because he has not believed in the name of the only Son of God. And this is the judgment: the light has come into the world, and people loved the darkness rather than the light because their works were evil. For everyone who does wicked things hates the light and does not come to the light, lest his works should be exposed. But whoever does what is true comes to the light, so that it may be clearly seen that his works have been carried out in God.”

John 3:16 is probably the most well-known verse in the 66 books of the Bible.

God, who loved us, gave His Son to us, and anyone who believes in Jesus receives eternal life and does not perish. This gospel seems familiar to us. However, these words were spoken to Nicodemus, a Jewish leader who questioned Jesus because he didn't understand rebirth. After mentioning Moses lifting up the snake in the wilderness, Jesus said that the Son of Man must be lifted up so that everyone who believes may have eternal life. Then, Jesus continued with John 3:16, stating that Jesus came into the world as a light. Yes, the reason God's Son came as baby Jesus to this earth was to bring light to darkness, hope to despair, and joy to suffering. However, even after celebrating over 2000 Christmases, many people still haven't received eternal life. Jesus pointed out that this is because people love darkness more than light due to their evil deeds. He mentioned that those who follow the truth come to the light, indicating their deeds are done in God.

Those who know and believe in Jesus dwell in the light.

Those who know and believe in Jesus reflect His light.

Even in Romans, those who know and believe in Jesus put on the armor of light.

The famous Christmas carol, "Silent Night, Holy Night," carries this story. December in Obendorf, a small village in Austria, is a very cold place with strong winds blowing through the white snow. On Christmas eve in 1818, children and villagers gathered in St. Nicholas Church for a meaningful evening service of worship. After the service, overwhelmed with the joy of Christmas, people didn't leave their seats. That's when Franz Gruber, the church organist, picked up his guitar. He started playing a tune that Pastor Joseph Mohr had handed him with lyrics, and that song was the 109th hymn, "Silent Night, Holy Night."

"Silent night, holy night All is calm, all is bright Round yon Virgin, Mother and Child Holy Infant so tender and mild Sleep in heavenly peace Sleep in heavenly peace"

Pastor Joseph and Franz Gruber sang it in duet, and the choir followed with the chorus. On verses 2, 3, and 4, everyone unanimously exclaimed, "Christ the Savior is born!" But wait, the lyrics don't match the hymn? That's right. The lyrics of hymn 109 in the Korean hymnal could be considered a misinterpretation when compared to the biblical text and the original lyrics. This is because the phrase "어둠에 묻힌 밤 (in darkness buried)" in German translates to "a night when everything is asleep," whereas the English hymn translation renders it as "All is calm, All is bright." While "어둠에 묻힌 밤 (in darkness buried)" aptly describes the tranquility of a night shrouded in darkness, it fails to effectively convey the portrayal of Jesus, who came as a light. Jesus came as light. When His light shines, everyone reflects it brightly. Apostle John says, "Light has come into the world" (John 3:19). Knowing the light-bringing Jesus means reflecting that light by living a life that glorifies God. This Christmas, let us remember Jesus, who came as the light that saved us. Let's wish to reflect His light in our devout lives once again.

Let's join together and sing aloud, "Silent Night, Holy Night, All is calm, all is bright."

Application and Sharing

1. Let's meditate and share the love of God the Father, who sent the holy Jesus and His Son into this world.
2. Let's introspect whether our lives prevent us from approaching the light of our Lord due to following worldly desires. If so, let's repent.
3. Let's discuss how we can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shine Jesus' light in dark places, remembering Jesus who came as the light to this world.



성탄절 가정예배

Christmas Family Worship

“예수님 탄생하신 날,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



임마누엘장로교회 가정예배팀